

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3B - 마태복음 5:17-48: 산상수훈

II: 예수님, 모세, 그리고 제자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3B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산상수훈에 대한 두 번째 강의이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율법, 그리고 제자들을 다룹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17-48절을 분석해 보면, 17-20절에 전반적인 서론이 나오고, 이어서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의 구약 이해 사이의 세 가지 구체적인 대조가 두 세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세트는 5장 21-32절과 5장 33-48절에 나옵니다. 보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는 강의 개요가, 16페이지에는 각 장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일반 원칙과 대조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성취가, 만약 우리가 분노, 정욕, 이혼과 같은 법적 기술, 맹세, 보복 또는 증오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태복음 5:17-20, 일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요점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율법 전체는 영원히 유효하며(5:18), 제자들은 궁극적인 해석자인 그분께 순종해야 하고, 그분의 해석을 가르쳐야 합니다(5:19). 그래야 그들 스스로 도덕적 율바름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도덕적 율바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 정직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직함을 능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독특한 의로움 이어야 합니다 (마 5:20).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성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설명하는 용어는 대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다룹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단언하실 때,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사명과 히브리 성경의 윤리적 의도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단지 율법을 재확인, 재건, 또는 확증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관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의 연속성을 과장하는 것이며, 마태복음 5장 21-48절의 여섯 가지 구체적인 예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모세가 말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편, 예수님과 모세의 단절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은 히브리 성경의 어떤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히브리 성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배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셨다는 주장은 예수님과 모세 사이의 불연속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단지 모세를 재확인하기 위해 오셨다는 주장은 예수님과 모세 사이의 불연속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너무 많이 말하거나 너무 적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 전체에서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구절 바로 뒤에 나오는 여섯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 율법 사이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마태가 성취된 용어를 정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에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목표 이자, 그들이 가리키는 분입니다.

그의 왕국, 말씀, 그리고 행위에 대한 사명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윤리적 기준과 종말론적 약속을 성취합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의 유일한 권위 있는 교사가 되며, 그의 해석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율법의 성격을 줍니다. 그의 가르침은 히브리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공표한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맡으십니다.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여섯 가지 예는 예수님이 모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 안에 항상 내포하고 계셨던 함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함의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히브리 성경을 성취하신 것은 후대 랍비 문헌에서 발견되는 성경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랍비들은 겉보기에 혁신적인 판결들이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토라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장하시는데, 다음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안의 제자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습니까? 이미 강력한 주장으로 가득 찬 이 구절에서, 5장 19-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율법에 대한 의무에 대해 하신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경시하는 듯한 바울 서신의 특정 부분을 읽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율법이 영구적으로 구속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읽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서 6장과 7장, 특히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시며 그의 제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상황, 청중, 문제는 마태복음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바울은 마태와 같은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는 사도행전 15장과 21장 20절과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했으며,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비기독교 유대인들과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사역 기간 내내 회당 예배와 다른 유대교 관습을 계속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20장 17-26절, 22장 3-17절, 23장 1-6절, 24장 11-21절, 25장 8절, 26장 20-23절, 28장 20절과 같은 구절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전략에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친 것의 대부분은 율법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들을 율법 아래로 인도하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진 교사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러한 개종자들이 삶의 규칙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10절과 갈라디아서 3-14절에서 바울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을 사랑과 동일시한 것은 마태복음 22장 34-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20절의 결론으로, 마태가 속한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모세를 폐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의 영원한 권위를 옹호하고 궁극적으로 확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유대 지도자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로 이끕니다. 이 탁월한 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전통적인 이해 방식을 초월하는 여섯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의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를 능가할 것이며, 그들의 선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나는 빛과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16.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충 자료 16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보면, 이 구체적인 예들의 구조가 먼저 구약에 근거한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나열하고, 그다음 예수님의 대조적인 가르침을 나열하며, 세 번째를 제외한 모든 예에는 추가적인 적용이나 설명이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의미하셨는지에 대한 설명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 너희는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 여섯 가지 예를 "...라고 부릅니다. 대조법 .

자 , 반명제는 본질적으로 모순이며, 만약 그것을 반명제라고 부른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순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율법의 전통적인 이해와 대조시키신 것일까요? 해석가들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여섯 가지 예를 반명제 라고 말하는 것은 혼란 일이지만 ,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반명제는 단순히 대조적인 진술이 아니라 모순되는 진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상반되는 가르침을 의도하셨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과 상반되는 내용을 말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다면, " 살인하지 말라 함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 대조되는 것은 분명 하지만, 형식적으로 율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가지 대조적인 내용 모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인 사람들 사이에는 대조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조상들 , 즉 국가적 이스라엘, 즉 구약 공동체와 당신들 ,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조됩니다. 이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시 사역의 중심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 사이의

대조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전에 주신 신성한 계시의 권위를 초월하는 권위로 말씀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15장 4절도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자신의 초월적인 계시적 능력을 확인하십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 방식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7:29, 8:8, 9, 9:6, 10:1, 15:4, 28:18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드러내시는 대조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비난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21-48이 예수님을 모세와 대립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에 대한 당시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여기서 모세와 대립하는 분으로 제시되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공식 대변인으로 제시되었습니까? 23:2를 보십시오. 이 질문은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해서 설명하기에는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께서 율법의 함의에 대한 동시대의 해석을 다루셨고, 다른 경우에는 율법 자체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전자의 범주에는 1, 3, 4, 6번째 대조가 있습니다. 즉, 5:21, 31, 33, 43에서는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추가 자료를 첨부하거나 수정하여 인용하거나, 5.31에서처럼 여러 본문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후자의 범주인 2, 5번째 대조에서는 구약 성경을 단어 그대로 인용하고 추가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5.27, 5.38). 따라서 대부분의 대조에서 모세에 대한 동시대의 해석이 대조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는 고대 모세 본문이 수백 년 동안 해석되고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지, 폐하기 위해 오셨다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조적인 가르침은 구약의 윤리적 권위를 형식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약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가 유대인 교사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에 대해 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교사들의 오류를 폭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9: 1-9와 같은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유대 지도자들을 명백히 질책하셨으므로, 여기에서도 암묵적으로 비슷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과 폭로의 모델은 예 3과 6, 5:31과 43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 각 예에서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5:33-37에서 예수님은 먼저 조상들에게 계시된 서약에 대한 구약성서 본문을 언급하신 다음, 동시대의 변론술 , 즉 서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약을 조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박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밝히기 위해 ,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어둡게 하는 어둠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해석학과 그분의 더 큰 의로움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는 신학적 분수령입니다. 구약의 목적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일반적인 진술과 여섯 가지 구체적이고 대조적인 상황들은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율법을 확립하거나 확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예수님과 구약 사이의 정당한 단절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개인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구속사에서 그 역할을 완수하셨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율법 순종을 이해하는 데는 타당하지만, 그 순종이 함의하는 의미를 평가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고려해 볼 때 , 예수께서 율법이 그 역할을 다했다고 믿으셨다는 주장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율법을 가져오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나친 단절성을 범하는 것입니다. 일부 조직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시민적 또는 의식적 측면이 아니라 도덕적 율법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든 그것은 율법 전체와의 관계입니다.

율법을 현대 독자에게만 맞는 시대착오적인 범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 다른 이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진정한 내적 의미를 드러내거나 강화하셨다고 결론짓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기껏해야 부분적인 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자 목표이며, 따라서 그분이 율법의 궁극적이고 확정적인 해석자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있는 종말론적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신약의 사건들이 구약의 예언과 패턴을 성취하는 것처럼 율법을 성취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그대로 보존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궁극적 의미를 밝히십니다. 520절, 22:34-40, 23:23, 24절도 참고하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본래의 목적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5장 21-26절에서 예수님은 살인 금지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분노와 욕설을 암묵적으로 금지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구약성경은 분노를 용납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초월적인 가르침은 분노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연결시킵니다.

분노와 화난 말은 살인과 같습니다. 5장 27-30절의 두 번째 대조에서 예수님은 간음 금지가 간음으로 이어지는 정욕을 암묵적으로 금지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구약은 분명히 정욕을 용납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정욕을 간음과 직접 연결하신 것은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열 번째 계명인 "아무 것도 탐내지 말라 특히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로 해석하는 더욱 엄격한 성 윤리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욕이 간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5장 31-32절의 세 번째 대조는 말씀의 더 이상의 적용이나 확장이 없는 유일한 대조인데, 예수님은 결혼은 불륜이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길 수 없는 신성한 결합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구약성경은 이혼을 용납하지 않지만(특히 말라기 2장 14-16절 참조),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용납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틴의 미슈나에서 이혼 판결에 대한 논설을 다룬 힐렐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불륜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과 재혼은 간음과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이혼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일시적인 양보일 뿐이지만, 영구적인 결혼은 인간에게 있어 최초의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1-32절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대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실을 말하라는 성경의 권고를 꾸준히 마음에 새긴다면 서약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5장 33-37절을 보십시오. 구약성경은 서약의 오용을 분명히 용납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서약의 사용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는 서약을 금지하시지만,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결의론이나 서원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은 거짓 증언과 다름없습니다. 5:33-37절과 23:16-22절을 비교하십시오. 다섯째, 5:38-42절의 다섯 번째 대조는 보복에 관한 법이 주로 갈등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부차적으로 갈등을 지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가르칩니다. 구약은 범죄와 피해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라는 말은 한 사람 이상을 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탈리오니스(*lex talionis*)라고도 불리는 구약성서의 비례적 정의 개념은 주로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복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에 대해 어떤 보복적인 대응 대신 은혜로 응답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누군가에게 스스로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5장 38-42절에서 스스로 복수하려는 고집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을 것임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여섯째이자 마지막으로, 5장 43-48절에서 예수님은 친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그가 레위기 5장 43절에서 인용한 구절은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전통적인 추가 사항입니다. 레위기에서 인용된 본문은 단순히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하고 있으며, 이웃이란 아마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율법교사에게 선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구약성서는 원수에 대한 증오를 결코 용납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처럼 되고 싶다면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이교주의와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 율법,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연속성을 이룬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는 미국 문화의 남성 중심적 개인주의와 상반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분노와 공격성과 상반됩니다.

간통과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학대를 비판하는 그의 발언은 현대 페미니스트들의 정서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발언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그의 발언은 저명한 신자들이 거짓말로 적발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매우 필요합니다. 보복에 반대하는 그의 발언은 중요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신앙 때문에 외부적으로 박해받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미국 사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궁극적인 초월적

가르침과 전통적인 이해의 차이를 대조하는 이 여섯 가지 예는 5장 20절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보다 더 큰 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6장 1-18절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종교 활동으로, 6장 19-34절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태도로 주제를 전환하십니다.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이러한 영역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특히 5장 48절을 강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당신은 완벽합니다. 정말 경이로운 명령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에 그분처럼 무한한 완벽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되고, 그분의 도덕적 속성에 있어서 그분처럼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신학자들은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즉 사랑, 거룩함, 자비 등과 같은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 하나님의 전능함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할 수는 없지만,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과 자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지막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대조인 원수 미움을 멈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바로 공격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복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랑하고 나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서 진실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한 서약을 충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배우자에게 간음하거나 불충실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종종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자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명령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격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